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효과

강종수^{1*}

¹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ffect of Social Capital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Community Residents

Jong-Soo Kang^{1*}

¹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강원도 소재의 S시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수준이 주민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실시한 것으로 지역주민 27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지역 사회 수준의 사회자본은 참여와 네트워크, 신뢰 및 규범으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자본은 평균평점 3.02±.52로 나타났으며,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사회자본의 참여($\beta = .26, p < .001$)와 네트워크($\beta = .17, p < .01$) 그리고 신뢰($\beta = .16, p < .01$)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2 = .35$).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참여와 신뢰 그리고 네트워크가 높을수록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community residents. For the research, social capital was consisted of participation, network, trust and norm.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from 279 citizens of S-city in Gangwon-Do.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Mean analyses showed that social capital had 3.02±.52. According to hierarchical multiple-regression, participation($\beta = .26, p < .001$), network($\beta = .17, p < .01$) and trust($\beta = .16, p < .01$) among social capital showed positive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of community residents($R^2 = .35$). This study finally discussed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future study and practical implications on the results.

Key Words : Social capital, Life satisfaction, Community residents

1. 서론

사회자본은 경제자본이나 인적자본, 문화자본과는 달리 개인이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자본의 형태이다. 사회적 관계를 통해 신뢰와 결속을 창출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이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1-3]. 사회자본은 특히 다른 형태의 자본들과는 달리 행위자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 아니라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속에 내재하고 있는 자본이라는 점과 소유자에게만 배타적으로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공유되는 특징이

있다. 즉 공공재로서의 사회자본의 특성은 특정 집단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자본이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특징이 있다[4].

이러한 이유로 모든 사회과학 분야에 널리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학계간 공동의 개념적 성격을 지니며[2], 따라서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목받는 동시에 산업사회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로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사회자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초기의 이론적 논의[5-7]를 거치면서, 한편으로 사회자본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8-10]. 이와

Corresponding Author : Kang, Jong-Soo(Kangwon National Univ.)

Tel: +82-10-5550-6126 email: jskang@kangwon.ac.kr

Received December 24, 2013 Revised (1st January 17, 2013, 2nd February 3, 2014, February 4, 2014) Accepted February 5, 2014

함께 지역사회 수준에서 사회자본이 발생하는 원인들 [6,10]과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들[6]이 경험적으로 연구되었다.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들은 이후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어, 가령 조직과 교육 분야[6,11,12] 등으로 확대되어 왔고,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사회자본이 직무수행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능력과 삶의 만족도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13,14].

이와 같이 사회자본이 사회과학의 주요 화두로 대두된 것은 사회자본이 객관화되거나 체계적인 형태로 축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이는 사회현실 속에 각인되어 그 사회의 기능을 지속적인 방법으로 조직하며, 실천들이 성공할 가능성을 결정하는 일련의 강제력을 지니기 때문이다[15]. 사회자본은 다른 형태의 자본과는 달리 사람들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자본이다. 경제자본 등과 같이 유한하거나 주어진 자본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해 새로이 형성하거나 축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제로서 혹은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사회 단위에서 사회자본이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이 갖는 표본의 한계와 측정방식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일개 지역사회 내의 사회자본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 후에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 내지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제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일개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2.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주민의 생활만족도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가?
3. 지역사회 사회자본은 주민의 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사회자본

사회자본에 관해 Boudieu[16]는 지속적인 관계의 연결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 하였고, Coleman[2]은 합리적 선택이론에 근거하여 사회구조에서 형성된 자본으로서 그 구조안의 개별적 행위 주체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끔 촉진시키는 것이라

하였으며, Putnam[1]은 사회구성원들이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결국 사회자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내재된 사회적 신뢰, 네트워크, 규범을 의미하며[17], 구성원간 협조를 가능하게 하며, 조직이 필요로 하는 집단행위(collective action)를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 또한 사람들 사이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6].

사회자본은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와 호혜성 속에 배태한 자원들의 총합이며[18], Polanyi[19]가 강조한 경제생활의 시장 이외 다른 원칙들 즉, 중심성과 대칭성을 원칙으로 하는 재분배와 호혜성이 발현되는 자원이다. 다시 말해, 사회자본은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제도와 자발적 시민조직들의 규범을 토대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기제로서 그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에 관해서는 사회자본이 갖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인해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제시되고 있다. Putnam[1]은 사회자본이 연대, 규범, 신뢰로 구성된다고 하였고, Coleman[2]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의무와 기대감, 신뢰 규범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박희봉과 김영환[6]은 네트워크와 호혜성 및 신뢰로 파악하였고, 특히 한국사회에서 사회자본의 지표 개발을 연구한 소진광[8]은 신뢰와 네트워크, 규범, 참여로 접근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자본을 신뢰와 네트워크, 규범 및 참여로 구성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하위구성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트워크(network)는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개인이나 집단 등 행위자들 간의 전반적인 연계형태를 의미하며 집단 내 관계와 유대를 돈독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자본은 개인간, 개인과 집단간, 또는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며, 상호작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사회구조를 구성하게 해 준다. Putnam[1]은 시민참여의 네트워크가 일반적 호혜성의 규범을 확고하게 증진시키며, 협력과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여 다른 개인 간의 신뢰성에 관한 정보를 확산시킨다고 주장하면서, 그 형태를 결속형 네트워크(bonding network)와 가교형 네트워크(bridging network)로 구분하였다.

신뢰(trust)는 장기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대인관계로서, 지역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믿음과 정직을 바탕으로 내부의 연대감과 신용도를 확장시킬 수 있다 [3]. 이러한 연대감과 신용도의 확장으로 인해 구성원 서로 간에 협동, 감시, 통제를 통한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20]. 신뢰는 비공식적 네트워크 안에서 ‘특별한 신뢰’로서 사적 신뢰를 가지게 하는데, 결속형 관계에서의

사적 신뢰는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공동체적 일체감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깨지지 않는 속성이 있다. 반면에 공식적인 네트워크 안에서의 서로 낯선 이들에게 매우 보편화된 '일반화된 신뢰'로 공적 신뢰를 갖게 한다. 이러한 공적 신뢰는 기관에 대한 신뢰하고 하여 기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반화된 신뢰와 비슷하다[21]. 그리고 신뢰는 제도에 근거한 신뢰라는 점에서 신뢰의 효율성을 인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신뢰의 형성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22].

호혜성 내지 규범(norm)은 주어야 하는 의무와 받아야 하는 의무 그리고 되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상호 얽혀 있다는 것으로, 개인들과 집단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이다. Mauss[23]은 호혜성은 받은 선물의 가치가 즉각적이든 아니면 시간적으로 후에 발생하게 되던 상대방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수반하는 것으로, 단순히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으로 호혜성은 다시 재생산된다고 보았다. 개인들은 호혜성을 내재화하고 사회적 의무에 기초하기 때문에 노력이라고 보았다[24].

2.2 사회자본과 생활만족도

Putnam[1]의 사회자본에 관한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자발적인 협력은 사회자본이 많이 존재하는 곳에서 촉진된다. 그 결과 사회자본의 축적은 지역주민들의 갈등이나 집합적 행동의 문제를 좀 더 쉽고 평화스럽게 해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14].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건강, 빈곤, 실업 등의 사회적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자본이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사회자본이 많이 축적되어 있을수록 다양한 사회문제의 예방 내지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다. 사회자본의 지역사회 차원의 접근은 사회자본의 축적이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감을 높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14].

사회자본과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OECD[25]는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첫째, 개인에게 배태되어 있는 지식, 기술, 건강 등의 인적자본과 둘째, 집단 내 및 집단 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규범 및 네트워크 등 사회자본 셋째,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을 연결하는 정치·제도적·법적 장치 넷째, 건강, 연령, 생활형태, 사회적 지위, 학습, 사회적 연결의 범위 등의 경제적·사회적 배경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회자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박희봉·이희창[6]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적·사회적 요인보다는 사회자본 요인이 계속하여 삶의 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정규[2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참여와 공적 신뢰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민간자원 연계사업 참여 주민을 대상으로 한 김혜연[14]의 연구에서는 연계형 사회자본과 신뢰, 및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자본의 다른 구성요소들을 투입하여 삶의 질을 연구한 박길성[22]의 연구에서도 복지지수와 만족지수로 측정된 총체적인 삶의 질에 있어서 사적 네트워크와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공공 차원의 삶의 질에는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가 개인관계 차원의 삶의 질에서는 사회단체의 가입과 가족지지 네트워크가 중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회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부분적으로 수행되었으나 이론적 제시에 그치거나[25], 다른 요인들과의 차별성에 주요 점을 둔 경우[6], 그리고 특정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14] 등이어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목적과는 차이가 있고, 특히 사회자본의 측정 방식의 다양성을 감안하면 본 연구와 같은 정성적 자료에 의한 측정 역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조사지역

본 연구는 강원도 S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인 S시는 강원도 동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1,185.8km²이며 대부분 임야이고 전은 56.6km²로 전체 면적의 4.8%, 답은 16.5km²로 1.3%에 불과한 바다와 산맥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농산어촌 도시이다. 거주인구는 약 7만 2천여 명이며 이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고령화율은 2013년 24%로 초고령 사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형적인 특징으로 외부와의 인적 교류가 빈번하지 않고 오랜 기간 거주한 주민이 많아 지역응집성과 고유한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가 남아 있는 중소도시이므로, 이러한 이유로 지역사회자본 측정에 적합하다 판단되어 선정하게 되었다.

3.2 연구대상

S시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선정은 무작위로 편의표집 하여 가정 및 사무실과 상가 등을 방문조사 하여 조사의 취지와 응

답요령을 알려드린 후 동의를 구한 대상에 한해 실시하였다. 배포한 300부 중에서 287부를 회수하였고(회수율 95.6%), 이 중에서 결측값이 많거나 중심화경향을 보이는 8부를 제외한 279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 분석방법으로 자료의 분포적 특성은 빈도와 평균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특히 자료분포의 정규성은 왜도와 첨도를 통해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인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상관성의 정도와 다중공선성 여부를 일차적으로 진단한 후에 사회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사회적 특성변수와 사회자본변수로 나눈 모형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분산팽창계수(VIF)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9.0k를 사용하였다.

3.4 측정도구

3.4.1 사회자본

지역주민의 사회자본은 참여, 네트워크, 신뢰, 규범으로 측정하였다. 참여는 공동체 생활과 연계되어 있는 상태로 이웃들과의 모임이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각종 사회단체 참여와 정치적 참여, 종교단체 등 다양한 인적 행위가 발생하는 곳에서의 참여까지 포함한다. 측정도구는 계모임이나 동창회, 향우회 등 일차적인 결사체의 참여와 자원봉사,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 이차적 결사체 참여 그리고 정치적 참여는 각종 선거참여와 정치헌금, 집회나 사위참여 등을 의미한다. 6문항으로 구성된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3$ 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는 사람들 사이의 유대관계를 기초로 한 연결망을 의미하며, 사적인 네트워크로 자녀, 친구, 친척들과 연결되어 있는 정도,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이웃, 단체 등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6문항으로 구성된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 으로 나타났다. 신뢰는 지역주민들이 상호 존중하고 이익을 도모하고자 국가의 법률이나 조직의 규칙 등 각종 규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6문항으로 구성된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8$ 으로 나타났다. 규범은 개인 간 또는 집단 간에 공유된 표현, 해석, 의미체계 등을 의미하며 조직의 질서와 규칙, 시민의식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4문항으로 구성된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1$ 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으며(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평균의 합으로 복합지표(composite

index)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자본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로 나타났다.

3.4.2 생활만족도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는 Diener 등[27]이 개발한 SWL(Satisfaction With Life Scale)을 번안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지, 자신의 삶에서 기쁨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지, 전반적으로 자신에게 만족하는지 등에 관해 측정하며,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척도는 7점 Likert척도이나 5점으로 변환하여 측정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평균의 합으로 복합지표(composite index)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로 나타났다.

[Table 1] Reliability of major variable

Variable	Item	Cronbach's α
Social capital	22	.87
Participation	6	.73
Network	6	.82
Trust	6	.78
Norm	4	.71
Life satisfaction	7	.89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은 총 279명 중 남성이 138명으로 49.5%, 여성이 141명으로 50.5%로 비교적 고르게 표집 되었고, 연령별로는 50대와 그 이상이 92명(32.9%)으로 가장 많이 고령화율이 24%인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40대 77명으로 27.6%, 30대 57명으로 20.4%, 20대 51명으로 18.3%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이 147명으로 52.6%로 절반 이상이며 그 다음으로 대졸과 그 이상이 84명으로 30.1%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주부와 기타가 108명 38.7%로 가장 많았으며, 월 소득별로는 150~300만원 미만이 89명 3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50만원 미만이 50명, 17.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월 소득 평균은 180±101.9만원으로 나타났고, 다만 무응답자가 115명,

41.2%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대부분 주부 등 기타 직업으로 판단된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		Frequency	Percent	Mean	Missing
Gender	Male	138	49.5	-	-
	Female	141	50.5		
Age	20~29	51	18.3	-	2 (0.1)
	30~39	57	20.4		
	40~49	77	27.6		
	50≤	92	32.9		
Education	Middle school ≥	45	16.1	-	3 (0.1)
	High School	147	52.6		
	Bachelor	84	30.1		
Occupation	White collar	53	18.9	-	5 (0.2)
	Blue collar/Sales	39	13.9		
	Self-employed	74	26.5		
	Homemaker/Etc	108	38.7		
Religion	Christianity	85	30.5	-	-
	Catholic	35	12.5		
	Buddhism	41	14.7		
	Etc/None	118	32.3		
Income (monthly)	≥ 1,500,000	50	17.9	180 (101.9)	115 (41.2)
	1,500,000 ~ 3,000,000	89	31.9		
	3,000,000 ~ 4,500,000	17	6.1		
	4,500,000 ≤	8	2.9		

4.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와 자료의 정규분포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자본은 전체가 평균평점 3.02±.52로 나타나 리커트 5점 척도의 평균값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만 하위구성요인별로는 네트워크가 평균평점 3.27±.70로 가장 높고 반면에 참여가 2.78±.69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참여와 공적 신뢰가 가장 낮게 조사된 이정규[2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중소도시라는 지역 커뮤니티의 특성상 다양한 지역사회 단계 참여와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관계망의 수준은 높은 것임을 알 수 있고, 다만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 수준은 낮은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주요 변수의 정규성 검정을 위한 왜도는 -.54~.12의 분포를 보이고, 첨도는 -.50~.8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ajor variable

Variable	Mean±SD	Min	Max	Skew	Kurt
Social capital	3.02±.52	1.73	4.36	-.15	-.50
Participation	2.78±.69	1.00	4.50	.12	.53
Network	3.27±.70	1.50	5.00	-.11	-.33
Trust	3.01±.63	1.33	4.67	-.36	.03
Norm	3.04±.59	1.00	4.75	-.54	.87
Life satisfaction	3.31±.61	1.17	4.83	-.34	.01

4.3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된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회자본 구성요인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자본 전체와 참여와는 r=.72, 네트워크와는 r=.77, 신뢰와는 r=.78, 규범과는 r=.69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자본과 생활만족도 간에는 r=.36으로 나타났다.

[Table 4] Pearson's correlation Matrix

	①	②	③	④	⑤
① Social capital	1				
② Participation	.72***	1			
③ Network	.77***	.44***	1		
④ Trust	.78***	.40***	.53***	1	
⑤ Norm	.69***	.32***	.34***	.55***	1
⑥ Life Satisfaction	.36***	.37***	.33***	.31***	.31**

p<.01, *p<.001

4.4 사회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일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사회자본이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사회적 특성과 사회자본의 네 가지 하위구성요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다만 인구사회적 특성변인만 투입한 모형과 사회자본의 네 가지 하위구성요인을 투입한 사회자본모형을 각각 살펴본 후에 동시에 투입한 종합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및 모형설명력의 증감을 살펴보았다. 인구사회적 특성변인 중 성별은 남성을 기준변수로 하여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의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인구사회적 특성변인만 투입한 모형에서는 학력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며 모형설명력은 24%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Table 5] Regression Results for Life Satisfaction

Independent variable		Demographic model			Social capital model			Total model		
		β	t	VIF	β	t	VIF	β	t	VIF
Demographic characteristic	Gender(female)	.28	4.31***	1.13				.25	4.07***	1.15
	Age	-.25	-3.46***	1.42				-.33	-4.62***	1.49
	Education	.11	1.46	1.53				.02	.22	1.65
	Income	.30	4.29***	1.28				.28	4.25***	1.31
Social capital	Participation				.21	3.17***	1.31	.26	3.74***	1.37
	Network				.14	2.33**	1.52	.17	2.87**	1.75
	Trust				.18	2.36**	1.83	.16	2.03**	2.02
	Norm				.06	.89	1.47	.05	.70	1.72
R2(Adj. R2)		.24(.22)			.13(.11)			.35(.32)		
Δ R2		-			-			.11/.22		
Durbin-Watson		1.56			1.62			1.52		
F		1.29***			8.23***			12.69***		

* p<.05, **p<.01, ***p<.001
Notice: Gender(0)=male

더 생활만족도가 높으며($\beta = .28, p < .001$), 연령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떨어지며($\beta = -.25, p < .001$), 반대로 월 소득은 많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0, p < .001$).

다음으로 사회자본의 네 가지 하위구성요인을 투입한 사회자본모형에서는 규범을 제외한 세 하위요인이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며 모형설명력은 11% 수준으로 나타났다. 참여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beta = .21, p < .001$), 다음으로 신뢰($\beta = .18, p < .01$)와 네트워크($\beta = .14, p < .01$)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적 특성변인과 사회자본의 네 가지 하위구성요인을 모두 투입한 종합모형은 앞의 두 모형에서와 같이 인구사회적 특성변인에서는 학력을 제외한 성별($\beta = -.25, p < .001$)과 연령($\beta = -.33, p < .001$), 월 소득($\beta = .28, p < .001$)이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에서는 역시 규범을 제외한 참여($\beta = .26, p < .001$)과 네트워크($\beta = .17, p < .01$) 및 신뢰($\beta = .16, p < .01$)가 유의한 수준에서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간의 회귀식의 영향력을 분석해 보면 인구사회모형과 사회자본모형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한 3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는 인구사회적 특성 면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일수록, 연령은 젊을수록 그리고 월 소득이 많을수록, 사회자본 측면에서는 참여와 네트워크 그리고 신뢰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곧 사회자본이 지역사회 단위에서 주민들의 생활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주민들의 생활만족도 역시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를 통한 관계망의 형성이 촘촘해 질수록 보다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기 쉬우므로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지역단위의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강원도 S시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수준이 주민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실시한 것으로 지역주민 27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사회자본의 수준을 측정해 보면 사회자본 전체가 평균평점 $3.02 \pm .52$ 로 나타나 평균값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서구사회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것이며, 다만 하위구성요인별로는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네트워크가 가장 높은 반면에 참여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참여와 공적 신뢰가 가장 낮다는 선행연구[26]와 일치하는 반면에게 전국단위 표집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8개 조직을 제시하고 가입여부를 확인한 박길성[22]의 연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16개의 결사체를 제시하고 가입여부를 확인한 Inglehart[28]의 연구에서는 평균 80% 이상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나 박길성[22]의 연구에서는 1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측정방식과 표집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정 지역사회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국 표집으로는 알 수 없는 지역사회만이 갖는 특수성을 찾을 수 있다. 사회자본의 하위구성요인별로는 조사대상 지역과 같이 지역주민의 수가 많지 않고 인구가동이 적어 오랫동안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가져온 지역일수록 지역응집력과 고유성이 높은 지역사회가 형성되고 그 결과 참여와 이웃과의 교류를 통한 상호관계망의 수준이 높아져 네트워크의 정도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사회자본과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사회자본이 실제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일수록, 연령이 젊을수록 그리고 월 소득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사회자본 측면에서는 참여와 네트워크 그리고 신뢰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사회자본이 지역사회 단위에서 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사회자본의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주민들의 생활만족도 역시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를 통한 관계망의 형성이 촘촘해 질수록 보다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기 쉬우므로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지역단위의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사회자본에 관한 이론들을 종합해 보면, 지역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다양한 결사체에 가입하여 공적 및 사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자본은 결국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 사이의 신뢰와 이들이 맺고 있는 네트워크가 그 핵심이다. 개인이 공적영역이거나 혹은 자발적 결사체 형태의 다양한 사적영역에서의 모임 등에 가입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할수록 다양한 사회적 지지의 자원을 형성하게 되고 활동할 수 있는 모태가 된다. 네트워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Putnam[1]은 내적으로 잘 통합된 이른바 닫힌 연결망을 통해 보다 확실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내에 있는 사람들 간의 신뢰를 높여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사회적 제재(sanction)의 기반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신뢰는 사회자본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신뢰가 있음으로써 지역주민 상호간에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동할 수 있고 만일에 신뢰가 없다면 주민들 간의 관계는 잠정적이고 기회주의적이기 쉽다.

그러나 사회자본의 긍정적 영향만을 아니라 부정적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Portes[17]는 사회자본을 연구할 때 주의할 점으로, 첫째, 구성원들 간의 강한 네트워크가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는 배타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으며 둘째, 강한 네트워크로 인하여 공공성을 해치는 집단이기적인 과도한 주장이 나타날 수 있고 셋째, 공동체에 얽매이다 보니 사적 자유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넷째, 개인의 능력이나 수준, 의지 등과 상관없이 공동체의 질서에 따라야 하기에 규범의 하향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우선 자료수집이 지역주민 개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기초한 정량적 조사이며, 자료 수집이 일개 시에 한정되고 횡단적 연구이므로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으며 보다 다양한 변인들의 효과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지역사회 변화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자본이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그 효과를 일정부분 확인하였으나, 정작 지역사회 단위에서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실천적 방안은 연구되지 않았다. 후속연구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전략과, 또한 일부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과도한 네트워크 등이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 등이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R. Putnam,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2] J. S. Coleman,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p. 95-120, 1988.
- DOI: <http://dx.doi.org/10.1086/228943>

- [3] F. Fukuyama,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cts*. New York: Free Press, 1995.
- [4] I. Light, "Social Capital's Unique Accessibility", *Journal of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0(2), pp. 145-151, 2004.
- [5] H. B. Park, J. S. Kang and S. M. Kim, "The Creation of Social Capital and Intellectual Capital, and their Effect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Management",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12(1), pp. 3-35, 2003.
- [6] H. B. Park and M. H. Kim, "Social Capital and Governance Capacity in Local Community",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34(4), pp. 175-196, 2001.
- [7] S. C. Lew, "Good Government, Social Capital, and Trust: Korea, Japan, Denmark, and Sweden, East & West Studies conference, 14(1), pp. 63-75, 1998.
- [8] J. K. So, "Toward Developing Social Capital Indicators", 16(1), pp. 89-118, 2004.
- [9] S. M. Han, "Development of Social Capital Scale for Social Worke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33, pp. 237-272, 2007.
- [10] J. H. Choi, T. S. Ahn and E. H. Lee, "The Qualitativ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Capital Scale in Community - Focused on Community Welfare Network",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2(4), pp. 297-324, 2010.
- [11] S. Knack, "Social Capital and the Quality of Governance: Evidence from the Sta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4): pp. 772-785, 2002. DOI: <http://dx.doi.org/10.2307/3088433>
- [12] B. R. Bae, "Influences of Interpersonal Trust in Organizations on Responsiveness to Residents by Public Officials: Through the Intervening Variable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9(3), pp. 67-86, 2005.
- [13] K. S. Pyo and J. H. Kim,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Social Workers' job Performance and Problem Solving Ability",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30, pp. 69-92, 2009.
- [14] H. Y. Kim, "A study of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life satisfaction of the residents participating in mobilization program of community resources",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13(3), pp. 1-29, 2011.
- [15] S. H. Hong, J. S. Hwang, and J. S. Ryu, "A Study on the Community Participation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Korean Northeast Asia Studies*, 59, pp. 291-319, 2011.
- [16] P. Bourdieu, "The Forms of Capital", in John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pp. 241-258, 1986.
- [17] A. Portes,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Sociology*, 24, pp. 1-24, 1998. DOI: <http://dx.doi.org/10.1146/annurev.soc.24.1.1>
- [18] M. E. Warren, *Democracy and Associ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 [19] K. Polanyi, *The economy as an instituted process*, in Polanyi, K., Arensberg, C. and Pearson, H. (eds.), *Trade and Market in the Early Empires: Economies in History and Theory*, Chicago: Free Press, 1957.
- [20] W. H. Ahn, "Effects of Teacher-Students' Relations Social Capital on Student Achievement",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8(3), pp. 269-289, 2007.
- [21] A. Giddens, *The Consequence of Modern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 [22] K. S. Park, *Social capital and Quality of Life*,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45(2), pp.109-139, 2002.
- [23] M. Mauss, *The Gift: The Form and Reason for Exchange in Archaic Societies*, N.Y: W. W. Norton, 1990.
- [24] S. C. Lew, "Good Government, Social Capital, and Trust: Korea, Japan, Denmark, and Sweden, East & West Studies conference, 14(1), pp. 63-75, 1998.
- [25] OECD,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2001.
- [26] J. K. Lee, "Satisfaction with Life and Social Capital : Centered on the Effect of Civic Participation, Trust and Social Resources",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 pp. 5-40, 2009.
- [27] E. Diener, R. A. Emmons, R. J. Larsen and S. Griffin, "The Satisfaction of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pp.71-75, 1985. DOI: http://dx.doi.org/10.1207/s15327752jpa4901_13
- [28] R. Inglehart,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 cultural and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강 종 수(Jong-Soo Kang)

[정회원]



- 1998년 2월 : 대구대학교 대학원 산업복지학과
- 2007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1998년 3월 ~ 2008년 2월 : 노무법인 정평(J&P) 대표노무사
- 2008년 2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법